



# 김민재가 주장 완장 “2연전 나를 따르라”

축구 국가대표 김민재가 북중미월드컵 3차 예선 오만전을 앞둔 경기 하루 전인 9월9일 오후(현지시간) 술탄 카부스 경기장에서 팀 훈련 전 몸을 풀고 있다.

오만=연합뉴스

## 부상으로 빠진 손흥민 대신 요르단·이라크전서 중임 “오늘밤 요르단전 필승”... 국내파·유럽파 26명 ‘한마음’

한국 축구 간판 손흥민(토트넘)이 빠진 홍명보호 국가대표팀에서 ‘수비의 핵’ 김민재(바이에른 뮌헨)가 주장 완장을 차고 2026 북중미월드컵 예선 2연전에 나선다.



고 8일(현지시간) 요르단 암만에서 처음으로 완전체 훈련을 진행했다. 국내파와 유럽파 등 총 26명이 모두 그라운드에서 모여 홍 감독의 지시에 따라 몸 상태를 끌어올렸다. 손흥민이 햄스트링(허벅지 뒤 근육) 부상으로 합류하지 못한 이번 대표팀의 구심점은 김민재다. 어느덧 대표팀의 중진이 된 김민재는 한국시간으로 10일 오후 11시 요르단 암만국

제경기장에서 열리는 요르단과 3차전, 15일 오후 8시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이라크와 4차전을 주장으로 치른다. 1996년생 김민재는 A매치 65경기를 소화했다. 이번 대표팀에서 김민재보다 많은 A매치를 뒀던 선수는 이재성(90경기), 김승규(알사바브81경기), 황희찬(울버햄프턴68경기)뿐이다. 현역 시절 센터백으로 그라운드에서 리더십을 발휘했던 홍명보 감독이 세계적인 수비수다운 기량을 갖췄고, 경험도 풍부한 센터백 후배 김민재를 택한 것이다. 김민재는 상대가 요르단인 만큼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보인다.

요르단은 지난 2월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워트겐 클린스만 전 감독이 이끈 우리나라에 0-2 완패의 아픔을 안긴 팀이다. 무사 알타마리(몽펠리에), 야잔 알나야마트(알아라비)를 앞세운 공격진과 속도 경쟁에서 압도당한 클린스만호 수비진이 무너졌다. 우리나라 센터백 가운데 가장 발이 빠른 김민재는 경교 누적으로 당시 경기에서 나서지 못했다. 요르단이 이번에도 같은 전략을 고수한다면 빠른 발과 판단력으로 후방의 뒷공간을 책임질 김민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김민재가 A대표팀에서 주장 완장을 찬 손흥민이 벤치 명단에만 이름을 올리고 출전하지 않은 지난해 10월 튀니지전 이후 처음이다. 한국은 요르단을 발판으로 15일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이라크전까지 3, 4차전을 모두 승리로 장식해 월드컵 본선 직행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각오다. 이번 2연전까지 마치면 B조 내 나머지 5개국과 홈 앤드 어웨이로 총 10경기를 치러 각 조 1·2위가 월드컵 본선 직행 티켓을 거머쥐는 3차 예선 여정 중 절반가량을 소화하게 된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 남자탁구, 日 잡고 아시아선수권 銅

한국 남자 탁구가 2승을 책임진 ‘에이스’ 장우진(세아)을 앞세워 일본을 물리치고 2024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 단체전 동메달을 확보했다. 장우진(사진), 안재현(한국거래소), 오준성(미래에셋증권)으로 전열을 짠 한국은 8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대회 이틀째 남자 단체전 8강에서 일본을 매치 점수 3-1로 물리쳤다. 이 대회에서는 3위 결정전을 치르지 않고 준결승 패배 팀 모두에 동메달을 준다. 한국은 이란을 제압하고 올라온 ‘최강’ 중국을 상대로 10일 준결승전을 치른다. 한국은 평창에서 열린 지난해 대회에서는 중국과 준결승전에서 저 동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이날 첫 매치에서는 안재현이 일본의 에이스 하리모토 도모키즈에게 2-3(6-11 11-8 2-11 11-7 5-11)으로 석패했다.



주니어 시절을 포함해 하리모토와 통산 상대 전적에서 5승 2패로 앞서던 안재현의 승리가 기대됐으나 결과는 풀게임 패배였다.

지난해 월드테이블테니스(WTT) 스타컨텐더 고아 8강 맞대결에서 1-3으로 졌던 안재현은 이날로 하리모토 상대 첫 연패를 기록했다.

2매치에서는 장우진이 도가미 슌스케를 3-1(11-9 11-3 5-11 11-6)로 완파하며 승부의 균형을 맞췄다.

장우진은 도가미 상대 통산 2전 전승을 기록했다.

3매치는 18세 오준성과 20세 시노즈카 히로토, 한·일 기대주의 첫 맞대결로 치러졌다.

오준성은 실업 입문 1년 만인 지난해 국내 최고 권위 대회인 종합선수권에서 역대 남자 단식 최연소 우승 기록을 작성하며 3관왕에 등극한 바 있다.

오준성은 예리한 백핸드와 상대 범실을 유발하는 플레이로 3-2(11-6 12-10 6-11 9-11 11-8) 승리를 매조졌다.

장우진과 하리모토의 한·일 에이스 맞대결로 치러진 4매치에서 승부가 갈렸다.

## 준PO 4차전도 매진... 입장 수입 역대급 예상

프로야구 포스트시즌(PS)이 11경기 연속 매진 행진을 벌였다. KBO 사무국은 9일 경기도 수원케이티위즈파크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wiz의 준플레이오프(준PO-5전 3승제) 4차전 티켓 1만 7600장이 모두 팔렸다고 전했다. 가을야구는 지난해 한국시리즈 1차전부터 11경기 연속 만원 관중앞에서 열린다. 와일드카드 결정전 두 경기를 포함한 올해 PS 누적 관중은 13만 200명이다. 올해 프로야구는 정규리그에서 사상 최



초로 관중 1000만명 이상을 동원해 최종 1088만 7705명으로 막을 내렸다. 10개 구단 입장 수입도 처음으로 1500억 원을 넘어 1593억 1403만 1733원을 찍었다. PS에서도 연일 구름 관중이 몰려 PS 입장 수입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PS 6경기 입장 수입 추산액은 약 57억 원 정도다. 플레이오프(PO-5전 3승제), 한국시리즈(7전 4승제)가 남아 있어 100억 원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역대 PS 입장 수입 최고액은 2012년 15경기에서 벌어들인 103억 9222만 6000원이다. PS 입장 수입이 늘면 가을 야구에 출전

한 5개 팀에 돌아가는 배당금도 커진다. KBO리그 규정에 따라 KBO 사무국은 PS 입장 수입에서 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 약 40%를 공제한 금액을 배당금으로 5개 구단에 준다. 정규리그 1위로 한국시리즈에 직행한 KIA 타이거즈가 배당금의 20%를 먼저 받는다. 이어 한국시리즈 우승팀(50%), 준우승팀(24%), 플레이오프에서 패한 팀(14%), 준플레이오프에서 패한 팀(9%),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패한 두산 베어스(3%) 순으로 배당금을 나눠 갖는다.



6일 오후 2024 신한 SOL뱅크 KBO 포스트시즌 준플레이오프 2차전 kt wiz와 LG 트윈스의 경기가 열린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관중이 응원하고 있다. 이날 입장권 2만 3750장은 경기 시작 4시간여 전에 모두 팔렸다.

연합뉴스